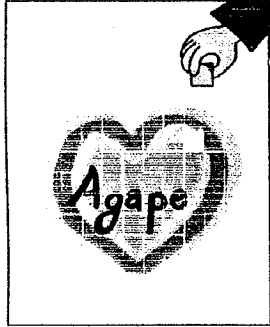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빌린 돈을 갚으러 왔소이다."**

우리가 할 일



딱 한 조각 남기는 주님.

6,25 전쟁 당시, 9.28 수복이 이루어져 전쟁이 끝났다가 싶던 때였습니다. 폐허가 되다시피한 서울 땅에서 청년 최태섭은 친구로부터 단무지를 군대에 납품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청년들을 위해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으로 그는 덜컥 그 일을 해보라고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얼마간의 돈을 빌어 조그만 단무지공장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단무지를 만들어 팔다 보니 약간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 갑자기 전세가 급변하여 압록강까지 올라간 우리 국군이 증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불안해진 사람들이 다시 집을 싸고 하나 둘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태섭은 집을 꾸리기 전에 처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으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은행은 이미 업무를 중단하고 모두 피난을 떠나고 한 사람만이 남아 뒷일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매우 초조한 기색으로 떠날 준비를 하느라 최태섭이 다가오는 지도 몰랐습니다. 최태섭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러 왔소이다."

그제서야 은행직원이 별사람 다보겠다는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난리통에 돈을 갚으러 왔다고요? 지금 보다시피 은행업무가 마비됐으니 다음에 오시오."

은행직원은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최태섭은 얼른 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나도 피난을 가려는 중이요. 이 전쟁에 내 목숨도 어찌될 지 모르는데... 그러니 일단 돈부터 받아두십시오."

은행직원은 하는 수 없이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주었습니다. 영수증을 호주머니에 넣고 은행문을 나서자 멀리서 쿵쿵 포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만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 그가 바로 '한국유리'의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입니다.

◀잡뭇이루는 밤엔 우며의 촛불을▶ 어느 중학교 한문 시험문제...

<문제>:'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며 자란 친구를 4자로 된 한자 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죽마고우 竹馬故友

★ 문제의 그 A학생의 답 : "부랄친구"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2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7월 21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하나님의 응답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것이 가능하다(눅18:27)"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라고하면
"내가 너를 쉬게하리라(마11:28~30)"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아요"라고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요13:34)"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못해요" 라고하면
"네은혜가 내게 족하다(고후12:9 시91:15)"라고 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라고하면
"내가 네발을 인도하리라(잠3:5-6)"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라고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있다(롬8:28)"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자신을 용서 못해요"라고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요일1:9 롬8:11)"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 나갈수 없어요"라고하면
"내 모든것을 채우마(빌4:19)"라고 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라고하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벧전5:7)"라고 하십니다

"너무 외로워요" 라고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히13:5)"라고 하십니다.

엄마가 딸에게

직업에 귀천이 있음을 기억하거나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직업은
귀한 것이고
해를 끼치는 것은 천한 직업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빠보다는 아버지라고 호칭하거나
꼬마였을땐 귀여운 표현이지만
아버지라고 하면 너도 성장해 보이고
아버지의 권위도 선다

주 일 예 배

(* 표는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Calvary" 다 같이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영서의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Proclaim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송 23장 다 같이
Hymn

*성서교독 19(시 84)
Response Reading

*신앙고백 사도신경

Apostle's Creed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483 장 다 같이
Hymn

기도 박일영 집사
Prayer

성경봉독 누가복음 11:5-13(신 111) 인도자
Scripture Reading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나무십자가성가대
Choir

설교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김성국 목사
Sermon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전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Hymn

* 헌금 기도 인도자
Offer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응답송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Response Song (1절:김반석 집사 가족, 2절:다같이)

위탁의 말씀 인도자
Encouragement 축도 김성국 목사
Benediction

◆6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가족찬송	Tea Time
7	박상옥	이광희	사카시다.최기향	김교섭	권용일.김경구
14	김교섭	이금선	양경배.김동숙	김경구	김반석.김성국
21	박일영	이기중	윤형권.신영화	김반석	김영길.김종권
28	사카시다	이재영	김교섭.정희자	김성국	김종우.김종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담살들은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6시

◀교회소식▶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사시다가 시신조차 세브란스 병원에 의학실험용으로
헌체(獻體)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김심홍 집사님의 부친 김경수 목사님의 삶과
소천 소식을 듣고 자못 숙연함으로 나를 돌아본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밤 밖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 초롱초롱한
별들이 우리를 잃어 버렸던 내면의 수많은 아름다운 세계로 기꺼이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무척 스치웁니다"

1.교우소식

*소천: 김심홍 집사 부친(민광호 집사 장인)이신 김경수 목사님께서 소천.한국에서
장례식 마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실 소망으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2.등록하셔서 갈보리 가족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박재양, 한상미 집사.희중.윤중 ☎(09)426-5906 ☒ 27 Maygrove Dr. Orewa

3."약속의 아비"기도 모임: 화요일(23일) 저녁 7:30. 교회

4."임직자 신앙성경 필사본" 열람: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5.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창립기념주일과 임직식을 위해 봉사하신 1,2 여선교회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어둠이 가시기 전 성전에 들어가 기도 한참 하고 나설 때 어느덧 밝아져 있는 하늘
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입니다.

*자택과 가장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셔서 새벽기도의 은혜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중 한번 금요일 새벽 6시에는 우리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심방요청을 기다립니다: 심방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 가정안에 임하게 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심방시: 식사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 차 한잔으로 은혜의 여운을 나눕니다

*담당:김교섭 장로,노은숙 권사에게 요청바랍니다

8.사랑의 실천'이삭줍기주일'(예고): 다음주일입니다. 한달동안 모아놓으신 Silver
Coin은 2명의 필리핀,태국의 어린이에게 배부름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9.남선교회 정기월례회(예고):다음주일입니다



◀아버지의 존재▶

"내 인생에는 언제나 등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빛은 멀리서
부터 나를 인도하였지만 단순하게 강렬하지만은 않았습니니다.
그 빛은 늘 온화한 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제나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등대 옆을 지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배에서 내려 등대로 다가
가 보았습니다. 낮은 등대 문에는 조그만 문패가 달려 있었습
니다.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광수생각 중에서-